CHINESE TITLES

제목 : 推开哲学的门
가제 : 철학의 문을 열다
저자 : 傅佩荣 푸페이롱
발행일: 2013년 04월 01일
분량 : 244
장르 : 인문, 철학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노자를 읽고 장자에게 배운다> 저자의의 작품
2013년 중국 신문출판사 총회 대국민 독서캠페인 '대중들이 제일 좋아하는 도서50',
2014년 중국 공영 신문출판사·방송 총회 '전국 청소년 추천 우수도서 100',
2014년 중국 교육부 선정 '초·중학생 추천도서' 에 선정!

철학가들의 비사와 함께하는 철학 입문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당대 서양철학의 77인의 선구적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 책 한 권에 모았다.

<내용소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 당대 서양철학까지, 가장 중요한 77인의 선구적 철학자들의 주요 사상을 이 한 권에 모았다. 철학가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까지 함께 곁들여 정교한 철학의 세계에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흡인력을 높였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철학가들의 생애를 함께 본문으로 다뤘다는 것이다. 철학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들의 고난, 그 당시 세상을 향해 고군분투했던 과정을 철학 사상과 함께 접하게 되면 독자들이 그들의 철학이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던, 철학가들의 사상과 난해한 이론만을 늘어놓는 기존의 철학도서에 비해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 작가는 객관적인 자신의 평가와 감상까지 더했다. 각 파트의 이야기들 속에는 철학에 해박한 작가의 인생과 깨달음에 관한 글이 곁들인 점 역시 이 책에 꼭 한 번 읽어 볼만한 가치를 부여한다.

<작가소개>

푸페이룽

1950년에 출생해 타이완대학 철학대학원 석사와, 미국 예일대학 철학박사과정을 마쳤다. 타이완대학 철학과 학과장 및 철학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고 벨기에대학,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 객원교수로도 활동했다. 현재 타이완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작가는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말솜씨를 가진 교수로, 타이완 민생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학교수로 선정되었다. 또한 타이완 교육부 선정의 우수 교육자상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자의 또 다른 작품인 <성공한 인생>으로 타이완 문화예술 분야 국가문예상을, <천론에 대한 유가와 도가의 해석>으로는 중정中正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작가는 현재까지 타이완에서 백 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다. 그의 작품 중 우리나라에 변역 출판된 작품으로는 <노자를 읽고 장자에게 배운다>가 있다. 그는 전통 경전 연구에서도 기존의 이론이나 고정관념을 탈피한 독창적인 견해를 지녀 논어, 맹자, 노자, 장자, 역경 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며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차>

1장: 그리스 로마 철학

1. 주방에는 신이 살고 있다/ 영리한 두뇌/둔중한 걸음걸이/ 피라미드 측량
2. 피타고라스- 수학의 아버지
수학의 오묘함/ 사고방식의 윤회
3. 헤라클레이토스-변증법의 창시자
성격과 운명/ 만물은 모두 돌고 돈다
4. 파르메니데스-신과 지혜
신과 사람은 다르다/ 여신의 지혜/ 사람의 심정을 안정시켜주는 것/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5. 엠페도클레스- 화산분출구에 뛰어든 철학자
다원적 세계관/ 영혼의 윤회
6. 아낙사고라스-원자 유물론의 선구자
진실된 고백/ 슬기로움의 작용
7. 데모크리토스- 최초의 백과사전식 학자
고대 유물론/ 감각기관 덕분에 삶을 유지한다
8. 프로타고라스- 소피스트의 대표
사람은 만물의 척도다/ 상대적 가치/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9. 소크라테스-위대한 철학자
철학자의 아내/ 성내의 주민/ 진정한 반성/ 죽음에 대한 성찰/ 생의 단계
10. 플라톤- 철학이란 이름으로
숨은 고찰/ 땅굴 속에서의 고난/ 유아교육/ 심신수양/ 마부와 두마리 말/ 신성한 광기/ 철학의 왕
행복한 인생이란/ 니키코스학파

11. 아리스토텔레스

위기속의 선택/사고의 규칙/ 간단한 로직/ 4원소설/ 잠재능력과 현실/ 이성과 태도/ 연민과 공포

12. 제논(엘레아) 선악과 자유

이성이 곧 신성이다/ 완전한 덕행/ 제논 보다 더욱 마음을 평정시켜 욕심을 줄여라

13. 세네카- 자신을 위해 살고 싶으면, 반드시 남을 위한 삶을 영유해라

관료 철학자

14. 에픽테토스-인류의 발원을 따지면 우리 모두가 형제다

노예 철학자

15.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명상록>의 저자

황제 철학자

16. 에피쿠로스-에피쿠로스학파의 철학가

에피쿠로스학파의 창시자/ 쾌락주의의 본질/ 세가지 공포를 물리쳐라/ 욕망의 성가심

17. 피론-회의론

의심받는 마음/ 10가지 주장/ 목풍에 맞서서

18. 키케로-진실됨 없는 존엄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 고통과 쾌락의 사이/ 운명의 난해함

19. 플로티노스 -신플라톤주의

상계와 하계/ 인생의 진행 과정

2장: 중세 종교철학

20. 기독교-신앙의 광명

21. 아우구스티누스 -신학 백과사전

22 하나님은 불가사의한 존재-신앙의 탐구

23. 안셀무스-신앙 존재후의 이해

24. 토마스아퀴나스-소의 침묵

25. 오컴-무적의 박사

26. 엑하트

27. 쿠사의 니콜라스-경외하는 신의 지체

28. 칠종죄도-만악의 근원

3장: 근대철학

29. 페트라르카 -계관시인

30. 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 -인문주의의 선언

31. 마키아밸리-군주론

32. 종교, 과학, 철학- 인간 스스로가 안착시키다

33. 프랜시스베이컨-과학 신세기의 예언자
34. 홉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이다
35. 몽테뉴-생활의 철학
36. 데카르트-근대철학의 아버지
37. 파스칼-우리는 자신을 알아야만 한다
38. 스피노자-사람은 생각한다
39. 라이프니쯔- 완전한 예술학원
40. 로크-천부인권
41. 버클리-인간인식원론
42. 볼테르-유럽의 양심
43. 장 자크 루소-자연응로의 회귀
44. 흄-온화한 회의주의
45. 칸트-피할 방법이 없는 클라이막스
46.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나 자신을 잃은 것은 인생을 잃은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47. 프리드리히 빌헬름 요제프 셸링-세계의 존재
48. 헤겔-미네르바의 부엉이, 황혼에 들어서 날개짓을 시작하다

4장: 현대철학

49. 쇼펜하우어 -인생은 시계추와도 같다
50. 포이에르바하-인문학이 신학을 대신하다
51. 마르크스-변화된 세계의 사람들
52. 괴테-시인과 철학자의 일치
53. 프로이드-정신분석학의 창시자
54. 키에르케고르-실존주의의 창시자
55. 니체- 철학을 뛰어넘다.
56. 윌리엄제임스-신앙의 의지
57. 후설-인식에서 비롯하다
58. 베르그송-철학작가
59. 화이트헤드-자신 생명의 장인
60. 러셀-성공에서 기쁨을 얻다
61. 비트겐슈타인-언어철학의창시자
62. 카시러-언어는 부호다
63. 카를야스퍼스-성실함을 다하는 자신
64. 하이데거-존재와 시간
65. 마르셀-소유가 아니라 소유당한 것이다

66. 사르트르-존재는 본성을 앞지른다
67. 카뮈-인도주의
68. 피에르 테일라르 드 샤르댕 -중국에 대한 애정
69. 스트라우스-동시존재와 결속
70.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진리는 시작이다
71. 폴 리쾨르-죄와 벌
72. 위르겐 하버마스-당대 최고 영향력있는 사상가
73. 자크 데리다-분석의 길
74. 존 롤스-정의주의
75. 경제철학
76. 에마뉘엘 레비나스 -나와 타인의 관계
77. 일리아드-당대최고의 종교학자

제목 : 别说你会过日子

가제 : 이 책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저자 : 木鱼咚咚 무위똥똥

발행일: 2015년 02월 01일

분량 : 241

장르 : 생활실용

<내용 소개>

고양이 엄마는 동네 소식통이자 만물박사다. 고양이 엄마는 이웃들이 손도 대지 못하던 골치거리들을 군더더기 없이 해결 해 낸다! 요리부터 시작해 청소, 초목 가꾸기, 가구 배치, DIY, 의복, 가구관리, 건강까지 이 모두가 그녀의 전문분야다. 생활이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조금 더 생각해서 알고 있던 상식을 동원해보면 복잡해 보이던 문제들이 손쉽게 해결된다.

<작가소개>

무위똥똥

기자와 편집자를 거쳐 현재는 가정주부로 칼럼리스트로도 활동 하고 있다. 다년간 모던 가구 쪽으로 기고해왔다. 장기간 쌓여온 생활 노하우로 지인들에게는 살림고수라 불리며, TV 프로그램'중국의 좋은 주부'에 나간다면 그녀가 올해 대상을 거머쥘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목차>

Part1 내맘에 딱 드는 옷

보풀은 어떻게?
단추는 왜 늘 어긋날까?
브래지어가 자꾸 이탈한다면?
잘 망가지는 스타킹은 어떻게 해야하나?
신발에 문제가 생겼다면？
옷이 자꾸 탈색된다면?
옷이 저주 변형된다면?
얼룩을 없애는 방법
빠르고 보기좋은 착복법
과학적인 수납법怎样收纳才科学？
재질의 가품여부를 판별하는 법

Part2 음식

쌀밥은 어떻게 짓는게 제일 맛있을까?

남들에게 칭찬받는 면요리 만들기!

어떻게 해야 맛있는 음식의 본색을 살리 수 있을까?

음식의 바삭함은 어떻게 유지시킬수 있을까?

맛있는 음식을 냄비에서 빨리 꺼낼 수 있는 방법

음식(반찬, 술안주) 더욱 맛있게 만들기

음식을 어떻게 썰어야 더 맛있을까?

음식을 볶을 때 냄비에 붙지 않게 볶는 방법

어떻게 채소를 씻어야 더 빠르고 깨끗할까?

어떤 식자재를 골라야 더 맛있고 경재적일까?

음식과 천적이 되는 조미료 알아보기

음식으로부터 생기는 질병 피해가기

중국 음식의 8대 주재료 절묘하게 사용하기

취사도구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

잘 드는 주방용 칼은 어떻게 가질 것인가?

주방에서의 당신을 크게 빛나게 만들 방법

음식 더 신선하게 보관하기

집안의 애완동물 관리하기!

Part 3 뜻밖에도 쓸모가 있는 물건들

작은 방을 큰 방처럼 만들기

작은 방을 큰 방처럼 꾸미기

작은방을 큰방처럼 정리하기

어떻게 방청소를 해야 제일 효율성이 높을까?

Part 4 '이케아' 와의 조예

언제 어디서나 DIY 활용하기

어떻게 동물을 키울수 있는지 아는가?

가정 상비약은 어떻게 구비해 놓을 것인가?

갑자기 닥쳐온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

뜻밖의 작은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작은 물건으로 큰 효과 발휘하기

제목 : 我的画本不够大

가제 : 스케치북이 너무 작아!

저자 : Erfan Mojib (이란)

발행일: 2015년 상반기 출간예정

분량 : 31

장르 : 아동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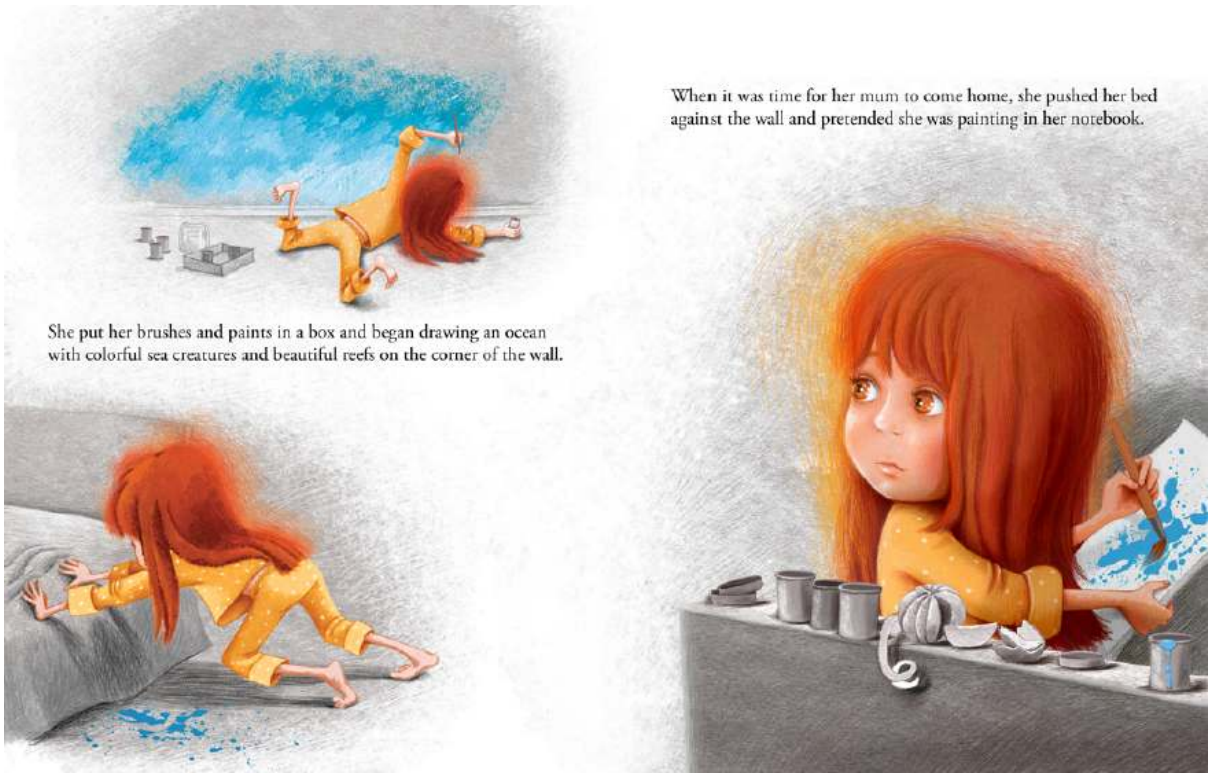
<내용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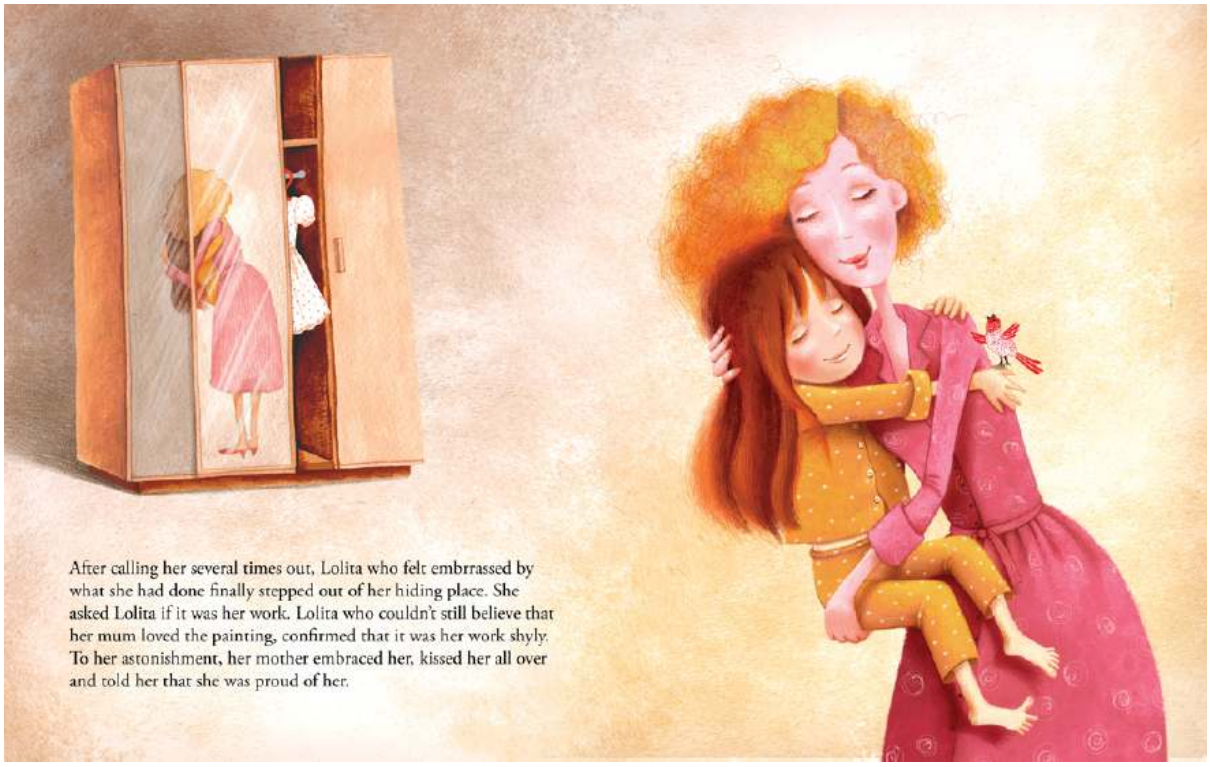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주인공 로리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스케치북이 너무 작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그려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벽에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예전에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다 혼이 난 기억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로리타는 결국 엄마 몰래 벽에다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합니다. 엄마가 없을 때 엄마 몰래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엄마가 오기 전에 벽에 지도를 붙이거나 침대로 그림을 감추어 두며 그림 그리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벽을 새롭게 페인팅을 하기 위해 페인터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춰두었던 로리타의 벽그림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엄마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 옷장에 숨어 있던 로리타를 불러 엄마는 로리타를 꼭 안아줍니다. 로리타의 그림이 있는 이 집을 팔 수 없겠다 여긴 엄마는 집을 팔지 않고 여기서 로리타와 계속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현대사회 바쁘게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는 상대적으로 아이를 신경 써줄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책의 주인공 로리타 역시 매일 출근하는 엄마가 없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잘 몰랐던 엄마는 로리타가 벽에 그린 그림을 보면서 아이의 그림 실력에 감동하는 한편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아이에게 더 신경 써 관심을 기울이자는 부모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담겨있어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읽기 좋은책입니다.

<작가소개>

Erfan Mojib 이란출신으로 번역가로 활동중이고, < 스케치북이 너무 작아!> 그의 첫 아동그림책입니다.

<본문이미지>


She put her brushes and paints in a box and began drawing an ocean with colorful sea creatures and beautiful reefs on the corner of the wall.
When it was time for her mum to come home, she pushed her bed against the wall and pretended she was painting in her notebook.


After calling her several times out, Lolita who felt embrrassed by what she had done finally stepped out of her hiding place. She asked Lolita if it was her work. Lolita who couldn't still believe that her mum loved the painting, confirmed that it was her work shyly. To her astonishment, her mother embraced her, kissed her all over and told her that she was proud of her.